생체인식 시장 2008년 3000억원

KISA, 국내시장 연평균 48% 성장 ... 세계시장은 2008년 46억달러

국내 생체인식 시장이 연평균 48% 성장해 3년 후에는 3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.

한국정보보호진흥원(KISA) 생체인식팀 김재성 팀장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정보보호산업협회(KISIA) 주최로 열린 <생체인식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자 간담회>에서 “국내 생체인식기업들의 관련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성이 막대하다”고 밝혔다.

또 31개 생체인식기업이 가입한 생체인식포럼의 조사자료를 인용해 국내 생체인식 시장이 2004년 630억원에서 2005년 950억원으로 50.8%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.

국내 생체인식 시장규모는 2006년 1310억원, 2007년 1970억원, 2008년 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조사됐다.

세계 시장규모는 국제 생물학 그룹(International Biometric Group)의 <2004년 생체인식 시장 보고서>를 인용해 2005년 18억달러, 2006년 27억달러, 2007년 37억달러, 2008년 46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.

한편, 김재성 팀장은 “KISIA가 최근 국내 생체인식기업의 해외진출 시 국제표준 적합여부 등을 공인받는 기관을 세우도록 정보통신부에 요청했으며, 정통부와 KISA가 함께 관련센터의 구성·운영 방안을 수립하고 있다”고 밝혔다.

이어 “향후 미국, 유럽 등 국제시험기관을 벤치마킹해 국내 생체인식제품의 정확성, 표준적합성 등을 보장하는 가칭 한국생체인식시스템시험센터(K-NBTC: Korea-National Biometric Test Center)를 설립함으로써 시험·인증 서비스도 추진할 계획”이라고 덧붙였다.

<화학저널 2005/09/02>